

구결학회 월례강독회(2021.6.26.)

『대방광불화엄경』 권14 강독(05:23-06:08)

마원걸(서울대 박사과정 수료)

<범례>

A: 한문 원문

B: 석독구결문(sktot2019_01_textB)

C: B에 대한 현대어역

D: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의 현대어역

<D화엄05:23>

A: 若見園苑 當願衆生 勤修諸行 趣佛菩提

B: 若 園苑乙 見 當 願 衆生 勤^ㄷ 諸¹ 行乙 修³ 佛菩提³ + 趣^ㄷ 立

C: 만약 뜰이나 정원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부지런히 모든 行을 닦아서 부처님의菩提에 나아가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동산이나 공원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행을 부지런히 닦아 부처님 보리에 나아갈지이다.

‘勤^ㄷ’에 대하여 (장윤희 2006:97~98, 각주 5)

장윤희(2006:97)에 따르면, ‘若 園苑乙 見 當 願 衆生 勤^ㄷ 諸¹ 行乙 修³ 佛菩提³ + 趣^ㄷ 立’ <화엄 05:23>에 보이는 ‘^ㄷ’형 부사 ‘勤^ㄷ’은 ‘브즐’ 또는 ‘붓’ 정도로 읽히는 것이다. 이 경우, ‘*브즐’을 찾을 수 있다면 ‘勤^ㄷ’의 ‘^ㄷ’을 파생 접미사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, 관련 중세국어형으로 ‘브즈런, 브즈러니, 브즈런^ㅎ-’ 등만 확인될 뿐 “*브즐”은 문증되지 않는다. 따라서 ‘勤^ㄷ’의 ‘^ㄷ’ 역시 단어의 말음첨기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.

물론 ‘브즈런, 브즈러니, 브즈런^ㅎ-’에서 공통적인 어기 “*브즐”을 재구해 볼 수는 있다. 그러나 이렇게 어기를 재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행 요소 ‘-*언’ 역시 재구가 필요하다는 부담이 따른다.

<D화엄05:24>

A: 見嚴飾人 當願衆生 三十二相 以爲嚴好

B: 嚴飾^ㄷ 人乙 見 當 願 衆生 三十二相乙 以³ 嚴好 {爲}³ 立

C: 꾸민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삼십이상으로 장식을(장엄한 相好를) 삼으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찬란하게 장엄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三十二 대장부의 몸매로 장엄하게 단장해지이다.

<D화엄06:01>

A: 見無嚴飾 當願衆生 捨諸飾好 具頭陀行

B: 嚴飾 無_レ 見 當 願 衆生 諸_レ 飾好_乙 捨_ッ 頭陀_セ 行_乙 具_イ 立

C: 꾸밈 없는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모든 장식을 버리고서 頭陀의 行을 갖추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단장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장식을 버리고 두타의 행을 갖추어지이다.

<D화엄06:02>

A: 見樂著人 當願衆生 以法自娛 歡愛不捨

B: 樂著_ッ 人_乙 見 當 願 衆生 法_乙 以_ッ 自_ヲ 娛_リ 歡愛_ッ 捨_ル 不_ッ 立

C: 즐거움을 탐닉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法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하되 환희하고 사랑하여서 버리지 마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즐거움에 애착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을 스스로 즐겨하여 환희하고 사랑하여 버리지 말아지이다.

‘-ㅁ’에 대하여 (황선엽 2002:200~202)

‘-ㅁ(-ㅁ/-ㅁ)’는 설명의 연결어미로, 선어말어미 ‘-오-’에 관형사어미 ‘-ㅁ’, 의존명사 ‘ㄷ’와 처격조사 ‘-이’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이며, 15세기 한국어 ‘-오디’의 선대형이다.¹⁾ (의존명사 ‘ㄷ’ 앞에서 ‘-ㅁ’이 탈락하여 ‘-ㅁ>ㅁ>오디’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)

‘-ㅁ’는 위의 문장 <화엄06:02>와 같이 후행절에 부정문이 온 경우가 많으나, (가) 처럼 긍정문이 올 수도 있었다. 이는 ‘-ㅁ’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석독구결 자료들에 유독 그러한 구문이 많아서 빚어진 결과로 생각된다. (이하 현대어역은 sktot를 참조한 것임)

(가) 若 橋道_乙 見 當 願 衆生 廣_リ 一切_乙 度_リ 猶入_一 橋梁 如_支 立(만약 다리 있는 길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널리 一切를 건너게 해주되 비유하건대 다리 같으소서.) <화엄05:19>

아울러 ‘-ㅁ’ 앞에 선어말어미가 통합한 것은 다음과 같이 ‘-ㅁ’이 유일하다.

(나) 法王_一 上 無_ッ 人 中_ヲ 樹_リ 大衆_乙 (a)覆蓋_ッ 量 無_ッ 光_ニ 口_ヲ 常_リ (b)說法_ッ 無義_ッ 非_ニ (法王은 위가 없어 人中의 樹이시어 大衆을 覆蓋함에 있어 한량 없는 빛으로 하시며, 입에 항상說法하오되 無義한 것을 하지 아니하시며) <구인11:8-11>

(다) 一者 一切 諸佛_ニ 菩薩_ニ 聰慧大智_リ 供養_ッ 親近_ッ 心_ヲ 厭足_ノ 無_ッ (첫째, 一切 諸佛이니 菩薩이니 聰慧大智이신 이이니 하는 이를 공양하고 친근하고 하되 마음에 厭足함이 없으며) <금광3:21-4:3>

(라) 二者 諸 佛 如來_ノ 說_白 甚深 法_乙 心_ヲ 常_リ 樂_ノ 聞_白 厭足_ノ 無_有 (둘째, 諸 佛 如來의 말씀하신 매우 깊은 법을 마음에 항상 즐겨 듣되 厭足함이 없으며) <금광3:21-4:3>

(나)에서 (a)‘覆蓋ッ白ク尸ム’의 주체는 ‘法王’이며, 객체는 ‘大衆’인바 이곳의 ‘-白’은 주체높임으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으며, (b) ‘說法ッ白ク尸ム’의 ‘-白-’ 역시 주체 높임으로 쓰인 예이다. 이와 같이 ‘-ク尸ム’ 앞에서 ‘-白-’이 주체높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‘-ク尸ム’의 ‘-尸’이 관형사형어미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잃어 버린 것이 아님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. 따라서 ‘-ク尸ム’가 아직 완전히 하나의 연결어미로 굳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. (다)와 (라)의 ‘-白-’은 객체높임으로 사용된 예이다.

<D화엄06:03>

A: 見無樂著 當願衆生 有爲事中 心無所樂

B: 樂著 無¹乙 見 當 願 衆生 有爲事^セ 中^ヲ 心^ヲ 樂^ク ノ 尸 所^ヲ 2) 無^ニ 乙 立

C: 즐거움이 없는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有爲의 일 중에서 즐거하는 것이 없으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즐거움이 없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하염없는 일 가운데 즐거하는 마음이 없어지이다.

<D화엄06:04>

A: 見歡樂人 當願衆生 常得安樂 樂供養佛

B: 歡樂人^乙 見 當 願 衆生 常^ニ 安樂^乙 得^ル 佛^ヲ 樂^ク 佛^乙 供養^ッ 乙 立

C: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항상 安樂을 얻어서 즐겨 부처님을 공양하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환락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을 얻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 좋아하여지이다.

<D화엄06:05>

A: 見苦惱人 當願衆生 獲根本智 滅除衆苦

B: 苦惱人^乙 見 當 願 衆生 根本智^乙 獲^ル 衆^ノ 苦^乙 滅除^ッ 乙 立

C:苦惱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根本智를 얻어서 많은 고통을 제거하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괴로워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근본지(根本智)를 얻어 모든 고통을 멀해지이다.

<D화엄06:06>

A: 見無病人 當願衆生 入眞實慧 永無病惱

B: 無病人^乙 見 當 願 衆生 眞實慧^ヲ 入^ッ 永^ク 病惱 無^ニ 乙 立

C: 병이 없는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眞實한 智慧에 들어서 영원히 병과 괴로움 없으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무병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 병과 시

1) 석독구결 가운데 ‘-ク尸ム’와 유사한 연결어미로 ‘-ク尸ム’가 있는데 이들은 형태적 구성,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. (황선엽 2002 참조)

2) <석독구결사전>에서는 ‘所(바)’ 뒤에 쓰인 ‘ヲ’를 말음첨기로 해석했다.

끄러움이 영원히 없어지이다.

<D화엄06:07>

A: 見疾病人 當願衆生 知身空寂 離乖諍法

B: 疾病人乙 見 當 願 衆生 身ヲ 空寂ノ 1入乙 知リホ 乖諍セ 法乙 離支ト立

C: 병 든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자신의 空寂함을 알아서 어그러짐과 다툼의 法을 여의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병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이 몸이 공적함을 알고 어기거나 다투는 법을 여의어지이다.

<D화엄06:08>

A: 見端正人 當願衆生 於佛菩薩 常生淨信

B: 端正人乙 見 當 願 衆生 {於}佛ニ 菩薩ノ +3) 常ニ 淨信乙 生ッヒ立

C:端正한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, “衆生은 부처님과 보살께 항상 깨끗한 믿음을 내소서.” (할 것이며)

D: 단정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깨끗한 믿음을 항상 내어지이다.

주요 참고문헌

김성주(2013), 「주본화엄경 권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」,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, 87-139.

이병기(2014), 「구결 자료의 어휘」, 『口訣研究』(33), 口訣學會, 23-61.

장윤희(2006), 「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」, 『國語學』(47), 國語學會, 91-144.

황선엽(2002), 「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-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」,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.

황선엽·이전경·하귀녀 외(2009), 『석독구결사전』, 박문사.

3) 해당 ‘-ノ’에 대한 <석독구결사전>의 해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. (예문은 일부만 제시)

① (‘菩薩’ 뒤에서) -계. § ‘菩薩’ 뒤에 쓰임.

【ノ +/여격조사; ノ +[ㄷ/말음첨기+ㄹ/여격조사]; ノ/말음첨기++/여격조사; ノ/속격조사++/의존명사; ノ [ㄷ/말음첨기+ㄹ/속격조사]++/의존명사】

『來ッホ 其所ト至リ 菩薩ノ 告ッ言白ナリ丁 <화소15:19-20>

爾ニセッ 1 時ト 智首菩薩 1 文殊師利菩薩ノ 問ッ 言ホ ノ <화엄01:04>